

전남 'AI 악몽' 현실로

영암서 5년만에 '고병원성' 확인... 닭·오리 46만마리 살처분

나주 등 7건 정밀조사

전남지역에서 지난 2003년 이후 5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되면서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특히 이번 영암지역 고병원성 AI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데다 인근 나주와 무안 등지에서도 닭과 오리의 집단폐사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5일까지 AI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신북면 이모세 농장에서 발생한 닭의 집단폐사 원인이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열정형

H5N1) AI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I 발생 농장 인근 위험지역인 3km 이내의 가금류 46만5천여마리와 계란 69만개를 살(殺) 처분해 매몰 처리했다.

그러나 영암지역의 AI는 초기 발생 지역인 정읍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데다 나주 도축장 수송차량의 이동 경로와도 관계가 없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전남지역 닭과 오리의 집단 폐사 건수는 지난 10일 나주 반남면 등에서 발생한 4건과 11일 영암군 시종면과 무안군 현경·운남면 등에서 발생한 3건 등 모두 7건이다.

이들 집단 폐사는 전남도 축산기술

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일반 질병으로 나타나는 등 AI 음성반응을 보였지만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기 전에 이미 3km 이내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는 등 고병원성이 라는 전제 하에 방역을 실시했다.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나주 4건의 경우 15일, 영암·무안 3건의 경우 17일까지 각각 나올 예정이다.

만일 이들 7건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면 최악의 경우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270만마리를 살처분 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첫 선박 진수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의 첫 선박인 17만500t급 벌크선 'HN-1001'호가 지난 11일 진수식을 갖고 크를 빠져 나오고 있다. 대한조선은 시험운항을 거쳐 5월말 인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 당선자 전략적 의정활동 펴라”

여대야소 정국... 지역 현안 풀어낼 상임위 진출 중요

李대통령 “5월 임시국회 열어달라”

미·일 순방 앞두고 회견 “경제법안 조속 처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4·9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창기기에 매진하라

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

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5월중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돼선 안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걸린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대통령인 저부터,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문제와 관련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대화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대 총선이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 등 여대야소 상황으로 정치환경이 바뀌자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지역정치가 화합을 통한 전략적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1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18대 국회가 극한적인 여대야소로 구성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자들이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당선자들이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고려, 상임위를 적절히 배분해 활동하되 문화중심도시, 광주 첨단R&D특구 지정 및 서남권개발(J프로젝트),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다루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상임위에는 2~3명의

당선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고위 관료 및 전문가 출신 당선자가 비교적 많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에 진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이 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리면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불협화음이 발생, 지역현안 해결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전례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의 입당 추진 등 화합과 상생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민주당 당선자와 정체성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무소속 당선자들을

당권 경쟁을 의식, 복당을 거부함으로써 호남 정치권의 목소리만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도. 또한 과거 민주당 출신 당선자와 열린우리당 출신 당선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서로 반목하기 보다는 대승적인 화합으로 호남 정치권의 미래 비

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하기 보다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지도부에 밀어주는 지혜를 발휘, 호남 정치권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광주서부지검(6회), 고려대 법학박(2학번)
- 광주지검 목포지청, 민원지청, 전주지검 검사
- 제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9기
-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 연세대 법학대학원 최고위과정 제24기
-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5부장검사
- 육군법무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형사3부장검사
- 서울지검 (초사, 특수) 2번 검사

변호사 최석두 올림

■ 업무계시 : 2008. 4. 11.(금)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6-156 대성빌딩 303호
 ■ 대표전화 : (02) 711-3800 ■ 개업소연 : 2008. 4. 23.(수) 오후 5시부터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고향인 광주에서 법무법인 로컴의 대표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력 및 경력

- 광주서중, 경기고, 서울대법대 졸업
- 광주지검순천지청, 대구지검김천지청
- 광주고검청, 대구고검청,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형사 2부장, 4부장, 5부장
- 전주지검청, 서울북부지검특별수사부장
- 대검공판송무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미약과장
- 법무부 국제입무심의관, 입무심의관실검사

● 개업소연 : 2008년 4월 17일(목) 17:30분

변호사 임내현 올림

■ 업무계시 : 2008년 4월 10일(목) ■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선동 706-33 법무법인 로컴
 ■ 대표전화 : (062)228-9999 ■ FAX : (062)228-9909

최고의 기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INFINITI

사면포팅

INFINITI